東大新聞

發行人 黃壽永
編輯人 兪光鎭
印刷人 鄭九鎬
主幹 權奇悰
編輯局長 申寬浩
編輯部長 張義植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慶州캠퍼스
우편번호 681
경북 월성군 현곡면금장리 707
전화 경주2—0131~6

每週 火曜日發行

今週一言

미혹이 있으므로 깨침이라고 하는 것이며 미혹이 없어지면 깨침도 없어진다。미혹을 떠나서 깨침은없고, 깨침을 떠나서도 미혹은 없다。
<佛敎聖典>

「학생회칙연구위원회」 발족

지난7일 會則시안 검토중

총학생회 "3월말 直選" 各大學別 평교수로 構成

총학생회 부활을 위한「학생회칙연구위원회」가 지난 7일 발족되어 첫 회의가 지난 11일 오전11시부터 韓相範위원장(法學科교수)을 비롯한 13명의 위원과 張耘(독문과) 군등 5명의 학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학칙장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출범위」가 그동안 준비해온 총76조항의 회칙에 대한 시안 작성배경및 과정등의 설명회가 있은뒤 구체적인 회칙시안 검토에 들어갔다。이에따라 오는 13일쯤 학생회칙이 마무리될것으로 보이는데, 張耘총학위원장은 『앞으로 교수와 학생측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더라도 총학생회 선거는 이달 28·29일에 예정대로 진행시킬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족된「학생회칙연구위원회」는 편교수로 구성됐으며 총학생회 회칙이 결정되는대로 자동해체되는데 위원장및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韓相範(법학과) 교수

◇위원=睦禎培(물교학과) 曺永祿(사학과) 洪致裕(물리학과) 金仁濟(경제학과) 金炅濟(농학과) 尹醫普(전자공학과) 金憲奎(교육학과) 金周煥(지리교육학과) 姜聲允(경후·기초과정학부) 金善鶴(경후·국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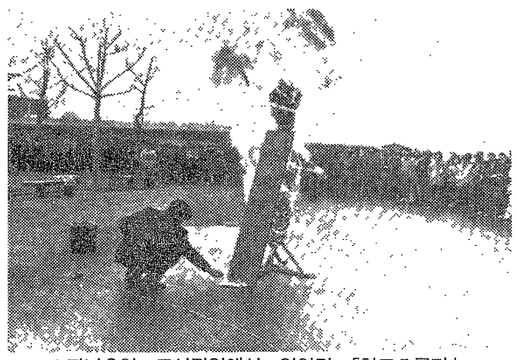
◇간사=황영수 학생생활과장

2차등록율 82%로 추가등록 16일까지

85학년도 1학기 추가등록기간이 오는16일까지로연장, 공고되었다。

결리과에서는 당초 지난 8일까지 1학기 등록을마감할 예정이었으나 미등록자가 많아 최종 등록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등록율은 지난11일현재 서울캠퍼스가 82%, 경후캠퍼스가 73%로 각각 집계됐는데 이는 예년과비슷한 비율이다。



▲지난8일 도서관앞에서 현판화형식 있었던 「학도호국단」 장면。

지난8일 학도호국단 해체선언

장운君등 3명단식투쟁

本校 학도호국단이 지난 8일 자진사퇴형식으로 사실상 해체되었다。

「학도호국단 해체식및비상학생총회」가 지난 8일 오후 2시 前학도호국단간부, 총춘위 위원을비롯 5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앞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장운(독문·4·前학도호국단 총학생장) 총춘위(가천)위원장은 인사말을통해 「그동안 학원내 비민주의 표상이었던학도호국단은 이 시간을 기해 우리의 자율적인 역량으로 해체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全東國人은 뜻과 힘을 모아 民主總學生會의 부활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자리에서는 「10代 학도호국단 활동보고와 반성」「在京 14개大 연합성명서 낭독」「東民推의 총춘위활동에 대한 지지결의 표명」「학도호국단 해체선언」이 있은뒤 「학도호국단 해체선언」이 비밀전관화형식」을가졌다。

이어 총춘위는 학교당국에 대해 「총학생회구성에 대한 예산집행보장」「4日 학생총궐기」「학생회에 대한 오후수업 전면휴강」「학생회 교육의 공식일정표명」등 3개항의 요구사항을 건의하는 한편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장운(독문4·총춘위 위원장) 심운용(정외4·東民推위원장) 일부영(경제4·학생회연합회대표)군등 3개 학생기구대표가 무기한 斷食에 들어갔다。

대학원 외국어시험

1일대출량 6백22권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의 84년도 도서총대출량은 17만4천9백84권(총개관일 2백81일)으로 83년도의 12만5천5백2권보다 4만9천4백82권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통계에 따르면 일일평균 대출량은 6백22권이었으며 월별대출량은 5월이 2만2천1백42권으로 가장 높았다。

경후캠퍼스 도서관의 84학년도 도서대출량은 총6만2백92권으로 밝혀졌다。

대학원 교학과에서 한고있다。한편 종합시험은 오는 4월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잔년對比 도서대출증가

龍喆元교수 신규채용 文科大 영문과교수로

학교당국에서는 지난1일 字로 龍喆元교수를 문과대 영문과에 조교수로 신규발령하였다。

▲龍喆元교수

龍喆元교수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62년 동국대 영문과卒 ▲69년 延大대학원(석사) 수료▲79년 미국 인디아나대학원(석사) 수료▲85년인디아나대학원(박사) 수료▲85년 동국대 영문과조교수

체육관장 白元俊교수 大院학감 成壩吉교수

학교당국은 지난1일 정년퇴임한 鄭豫世체육관장후임에 白元俊(체교과) 교수를 임명했다。

또한 1년간 해외연구차 渡獨한 鄭用吉대학원 학감후임에는 成壩吉(화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야구부 춘계리그출전 18일 계명대와첫경기

本校 야구부가 오는 17일부터 벌어지는「85년도전국대학춘계리그전」에 출전, 그동안 닦은 기량을 선보이게 된다。

전국대학 17개팀이 3개조로 나뉘어 리그전을 벌이게될 이번 대회에서 본교는 건국대·경희대·단국대·중앙대·계명대와 B조에 속해있는데 각조 상위 2개팀이 결승리그에 진출한다。

여학생회 공청회

"독립기구활동 모색"

「여학생회 부활준비 공청회」가 총춘위 여학생부주최로 지난6일 학림관소강당에서 열렸다。

호국단의 산하단체에 속해왔던 여학생회가 총학생회부활에 따라 독립기구로서의 활동을 모색하기위해 열린 이날공청회는 여학생부장의 간단한 인사말에이어 여학생회 부활준비 경과보고, 여학생회 설립및 운영방안설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에 출전한 本校축구부는 10조 수위로 16강에 진입했다。

축구부 16강진입

대통령배 축구대회서

제33회 대통령배전국축구대회에 출전한 本校축구부는 10조 수위로 16강에 진입했다。

교수동정

▲河德模(식공과) 교수=일본 식품영양학회 초청으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체류, 한국의 침체류에 대해서」라 주제발표。

職員人事

▲朴昇鍾 학생과근무
▲李元修 교육부근무
▲李聖鎭 기획과근무
▲金鍾顯 학적과근무
▲白敬善 학생과근무

도서관 열람석 대폭 늘어나

18日 증축개관식 佛敎學자료실도 설치

▲지난7일 自由中國 중국문화大 인도문화 연구소와 本校불교문화연구원과의 자매결연조인식광경。

중앙도서관 4층증축 개관식이 오는18일 오후4시 黃壽永총장을 비롯 학처장 金起東도서관장과 내외귀빈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중앙도서관은 이번 4층 증축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열람석이 6백석늘어났는데 이로써 총열람석수는 2천1백60석이 되었다。중앙도서관의 각층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층=신설「불교학연구자료실」이 위치。총 1백3평, 80석에 일반도서 1만권, 古書 1만5천권등을 갖추어 한국불교학연구의본산체역할을 하게된다。불교학자료를 계속 구입, 일반인에게도 공개, 운영할 예정이다。

▲2층=2백10평에 참고열람실이 위치, 참고도서와 정기간행물을 대출한다。

▲3층=총 4백75·75평으로 열람실이 위치。

▲4층=총 5백84평으로 열람실 2개, 과제도서실을 휴수한 同門文庫, 휴게실등을 갖추었다。

韓國高僧文集 展示會

18일부터 4일간개최

「韓國高僧文集展示會」가 오는 18일부터 22일 까지 도서관 불교학연구자료실에서 열린다。

중앙도서관증축개관기념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본교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韓國高僧文集 82種 1백册을 전시하게되는데 전시시간은 도서관개관시간과 같다。

「동국대입구」驛名 확정

지하철3호선 중문앞 보수공사착수

지난 11일 서울시가 확정발표한 중문앞 지하철역의 이름이 「동국대입구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중문사옥이 실처는 중문 보수와함께 주변조경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동국대입구」역명확정과 관련, 南都泳총무처장은 『학교홍보와 교세확장적 측면에서 볼때 재학생및 6만여 동문모두에게 자부심을 갖게하는 큰 계기가 됐다』고 말했으며, 金憲奎(교육학과) 교수는 『3호선 개통에 따라 중문사옥이 실질화되면 학교의 미지부상에 상당한 기여를할것』이라고 긍정적 예측을 하기도 했다。

한편 지하철3호선과 4호선의 연결지대로 교통의 요충지가 될 「동국대입구역」은 오는 8월경 개통될것으로 보인다。

「85학년도 교육실습」 내달1일부터 4주간

「85학년도 교육실습」이 사범대생과 교직과목수강자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각 해당학교에서 실시된다。약 6백여명이 참가하게될 이번 교육실습에 필요한 신청서는 지난달27일부터 지난6일까지 사대교학과(이부대는 이부대교학과)에서 접수했으며, 종합 오리엔테이션은 오는28일 오전11시 중강당에서 갖게된다。

社告

男女 修習記者 募集

大學言論暢達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 本社에서는 어둡과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나갈 意識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 서울·경주캠퍼스=약간명 <사진기자 포함>
②응시자격 : 1學年 男女在學生
③제출서류 : 본사소정양식 1통(배부중) 명함판사진 1매
④원서접수 : 85년3월5일~27일 <경주캠퍼스 20일까지>
⑤시행일자 : 85년3월28일 <경주캠퍼스 21일>
⑥시험과목 : 국어, 영어, 상식, 작문및 기사작성
⑦제 출 처 : 본사총무부
⑧시험기간및장소 : 추후 本報에발표
※學生기자에게는 規定에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금을 지급함。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서울28日, 慶州21日 전형

社團 東大新聞社

慶州, 취업률 79% 예년보다 다소감소

慶州캠퍼스의 85학년도졸업생 취업률은 지난8일현재 졸업생 5백16명중 4백5명이 취업, 약79%인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각 단대별로 살펴보면 文理大69%, 법경대91%, 한의대 1백%로 나타났다。취업직종별로는 기업체·진학·교직이 비슷한수준을 보였으며 자영사업과 금융계는 예년보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름계는 졸정제이후 늘어난 졸업생에 비해 신규채용이 적어 예년보다 전체적으로 2% 감소현상을 보였다。

慶州, 교·강사增員 교류교수 모두6명

慶州캠퍼스 교무과는 85학년도 교·강사의 현황과 교류교수제는 지난 79년에 실시된이후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된것으로 ▲金榮華(불교미술학과) ▲吳國根(영어영문학과) ▲辛容泰(일어일문학과) ▲朴昌喜(행정학과) ▲朴康植(경제학과) ▲黃龍浩(회계학과) 교수등 총6명이 되고있다。

權 前문교來校

서강대 徐仁錫총장도

교원대총장에 부임한 權前文敎部장관이 지난달 27일 인사차 본교, 黃壽永총장과환담을 나누었다。

이어 지난8일에는 서석임서강대총장이 黃총장을 예방했다。

영어는 시사영어사

時事英語研究 3월호

英語世界

新春2大 特輯

특집1 내가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겠다
본지가 신학기를 맞이하여 신입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영어학습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러 선배들의 경험담과 조언을 들어 볼 자리를 마련했다.

특집2 미국 유학 決心부터 出國까지
애독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미국 유학정보제공 요청에 부응하여 특집으로 엮어 본 미국 유학의 모든 것. 미국 유학을 결심해서 출국하기까지 유념해야 될 사항을 총망라했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다.

The Future of the Language
2020년 英語는 이렇게 바뀐다

Plagues of Religious Wars
오늘의 종교전쟁, 그 현장을 가본다 (中東, 인도, 북아일랜드)

Why Einstein May Have Been Wrong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잘못있다!

값 3,000원

값 2,700원

신연재 시사日本語会話
독자 여러분의 일본어 회화력 증강을 위해 새로 마련한 칼럼. 이번호에는 구문편과 회화편을 동시에 실어 초보자들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편집했읍니다.
시사영어사 일본어연구원 編

이달의 영화대사 BRUCE LEE

BOOK BONUS
「密會」 He'll Be Here Saturday
Margaret A. Robinson作/노희열 譯
해외에 소개하는 70년대 한국 대표단편 영역
Aabbe's Family (아베의 家族)

3월에 관련된 사실들
March 3月頌
봄의 길목에 서서 맞이하는 March(3월)… March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god of war(軍神) Mars에서 나왔다는 어원 설명에서부터 3월에 태어난 역사적 위인들 그리고 3월에 뒤바뀐 Alaska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3월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총망라!

영문독해의「함정」, 그 경향과 대책
영어학습의 묘수풀이 Key Points in English

원문과 함께 읽는 영미문학 감상
D.H. Lawrence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
영국의 대표적 작가 D.H. Lawrence는 현대의 물질문명을 거부하고 자연의 본능으로서의 성애(性愛)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그의 성철학(性哲学)의 진수를 담은 *Lady Chatterley's Lover* 중에서 주요 장면을 발췌, 소개한다.

야구의 역사
Baseball
푸른 다이아몬드의 비밀

How Flowers Are Named
꽃잎에 얽힌 이야기들

The Pleasures of Keeping a Diary
일기는 잊혀진 과거를 돌려준다

Stamp Collecting
우표 수집의 모든 것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불굴의 여장부, 로즈 케네디

이달의 영화 베스트키드

정기구독 문의처 : 서울(266)9936(266)9905(265)0509(273)2588 부산(802)7435·7445 대구(45)8890 광주(22)2376 대전(253)9885 전주(2)5328 인천(882)4122 수원(6)1478 강릉(2)2164 춘천(52)5134 청주(3)5639

(주)시사영어사

慶州 캠퍼스 보리수

우리 元曉大師께서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시던 聖典 攝大乘論에는 이런 귀절이 있다。『信念을 씨로 삼고 一闡提(일천제·구제받지 못할 중생)가 갖는 불신의 장을 극복하고 般若로써 菩我의 장을 이겨 외도의 벽루에서 벗어나 聲聞佛子가 된다。그러나 이것이 참 佛子가 된 것은 아니다。禪定으로써 聲聞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즉 갖가지 고난을 聲聞의 연약한 마음을 이겨내야 한다。그리고 이 갖난애같은 佛子가 무럼부럭 자라기 위해서는 般若로써 참 佛子가 되는 것이 大悲心이다。자비로운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마음을 갖고 總覺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연각이 갖는 捨心(세상을 버리고 도피하는 마음)의 장을 이겨만한 수가 있을까?

이 세상 인간과 그가 사는 누주 자연에는 지키고 따라가야할 萬古의 法이 있다고 믿고 그법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경허하게 산는 마음, 이것이 곧 信心인데 그것이 없다보니다자기중년 줄만 알고 우쭐대며 거만해지고 욕심을낸다。이것이 外道들이하는것이다。내노라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망상의 노예를 外道라하는것이다。그것을 이기는것이 『般若』란 지혜로운 마음가짐이다。聲聞과 緣覺은 그래도여기까지는왔지만 용기와 사랑이부족한 사람들인것이다。결국그들은참된佛子라고는할수 가없다는 것이 이論의주장이다。

李箕永

「찬된 佛子」의 條件

본호전이다。이 두 가지를 바로 가진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 이社會의 사람들이 갖춰야할 기본적인 정신자세가 바로 不信의 風土, 蔑我의 풍토를 뛰어넘는 일인데, 그것조차도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적으니 어찌 이 시대, 이 사회가 一闡提의 시대, 一闡提의 사회, 外道의 시대, 외도의 사회라 아니할 수가 있을까?

이 세상 인간과 그가 사는 누주 자연에는 지키고 따라가야할 萬古의 法이 있다고 믿고 그법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경허하게 산는 마음, 이것이 곧 信心인데 그것이 없다보니다자기중년 줄만 알고 우쭐대며 거만해지고 욕심을낸다。이것이 外道들이하는것이다。내노라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망상의 노예를 外道라하는것이다。그것을 이기는것이 『般若』란 지혜로운 마음가짐이다。聲聞과 緣覺은 그래도여기까지는왔지만 용기와 사랑이부족한 사람들인것이다。결국그들은참된佛子라고는할수 가없다는 것이 이論의주장이다。

李箕永

厚生福祉施設 擴充의 意義

사설

本校는 來年이면 開校80周年을 맞이 한다。사람으로 말하면 古稀를 넘어 米壽에 8年을 남긴 근 1세기의 歷史와 전통을 간직하게 된다。學校當局에서는 이미 開校80주년 紀念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東國80년史를 위시하여 外華에 치우치지 않고 名實共히 內實에 초점을 둔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중이라고한다。

그리고 금학기부터는 경주분교를 경주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文理科大學 法經大學 漢醫科大學 등 3개 단과대학을 신설하여 총 5천여명의 學生을 포용하는 매머드 대학으로 발족 하였다。

이에따라 경주 캠퍼스에는 실수관평대지위에 초현대식 장발형의 인문사회과학관을 중심하여 도서관, 학의과 병원, 등이 80년도부터 83년에 까지 완공을 보았으며 최근에는 84년도에 15억의 예산을 들인 다목적 학생회관의 준공을 가진바가 있다。거기에다 다시 체육관이 금년 하반기의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주캠퍼스는 이미 학생회관의 준공으로 학생복지시설은 어느정도 충족되었으며 또한 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그야말로 전원속의 꿈같은 大學으로 그 면모가 일신 될 것은 두말할 나위없게 된다。더구나 기숙사인 숨결舍야말로 東國大學校가아니면 안될 훌륭한 시설로 젊은 청춘을 영양하고 있다。

그리고 수주후면 준공식을가질 慶大橋야말로 경주시와대학을 잇는 교통의 대동맥이다。따라서 경주캠퍼스야말로 佛敎의 요람, 신라의 古都에 세워진 교육의 전당, 불교의 전당, 예술의 전당으로 그위용을 빛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경주캠퍼스가 수년내 이와같이 눈부신 발전을 가지게된 것은 학교당국의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로 내실있는 분교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의 소산이라고 본다。

본교의 경우는 어떠한가? 본교는 83년도의 강의동을위시하여 과학관의 증축, 사대건물의 보수, 도서관의 증축을 비롯 하여 「메마른 캠퍼스」를 「숲속의 캠퍼스로」라는 기치위에 교정 곳곳에학교당국의 식수와 동참들의헌수로서 그 면목을 일신하고자 온갖노력을경주하고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캠퍼스이기 때문에 웅장한 모습의 건설보다는 밑도있고 차분한설계로 솔도없는 빈터를 효용성있는 공간응용에 우선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위생적으로 여러가지 지적을 받아오던식당을 현대식 세척기를 사용하고 개가식 주방으로 개수하여 최고의 지성들의 대학의 모임이 될수있는 식당과 휴게실을 공사중이다。

이와같은 학생후생복지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는 눈에 따라서는 아직도 많은 점에서 더욱 확충하고 改善해야 할 점이 발견되리라 본다。특히 學生들이 자유스럽게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는 음악의 전당이라든가 또는 大강당의 건설이라든가 기타 수많은 요구사항이 있다。그러나 일이란 한번에 金體的으로 完成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오히려 必要에 따라 하나 하나 「마스터 플랜」에 의해 순서적으로 改善해 나가는 漸進的자세가 더욱 실천률을 거둘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학생후생복지의 확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학의 본질인 學問硏究를 후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목적은 아니라는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학의 본질에 입각하여 후생복지의 의義를 되살려야 한다。

大學은 알고자하는 人間의 근본적인 궐단을 단채로써 실현케 한는 곳이다。대학의 직접적인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또 앎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되는가를 발견하는 곳이다。

이러한 알고자 하는 열의는 관찰을 통해 조직적인 사고를 통해 그리고 객관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으로서의 자기 비판을 통해 표현된다。

따라서 대학은 곧 이와같이 자기 비판을 통해 진리와 合一되기 위해 특수한 위험과 건강에 자기자신의 열의를 불태운는 곳이기도하다。

이것을 위하여 대학의 厚生福祉가 있는 것이다。후생복지시설은 한낮 물질적인 풍요와 기술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의 本質인 知的 生活을 전개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곳에서 보다 많은 낮만과 정열로 학문의 神殿을 열어야사할 것이다。

「月印釋譜」제22권의 발견과 그 의의

<文科大교수·國語學>

金英培

지난 82년 7월 발견되어 보물 제7백45호로 지정돼있는 「月印釋譜 제22권」이 金英培 (국문과) 교수에 의해 비로소 그 학술적 가치를 드러냈다。이에 本紙는 국문학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것을 기대하며 本稿를 게재한다。 <편집자 註>

I

國學硏究에 있어서 고문헌의 영성함이 연구자들의 한결 같은 어려움이다。여기에 설상가상으로 6·25의 대전란을 겪은면서 그때까지나마 전해오던 典籍이 전화로 연멸되거나 또는 해외로 유출되어 날아 전하는 것은 더욱 그 가치가 돋보이게 되었다。그 중에선도 국어국문학 관계 자료는 眞寶 아닌 珍文 기록이었던 점에서 그 사정이 더 심하니, 앞으로는 새로이나 타나는 典籍에 대한 기대는 거의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지 않은가 한다。

그런데 3년전인 1982년 7월에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전하지 않는 줄 알았던 「月印釋譜 第二十二」가 세상에 알려져서 동학의 한 사람으로 기뻐해 마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소장주인 삼성출판사 金宗秉이사의 호의로 그 내용이 공개되어 연구자료로 제공됨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사의를 표한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月印釋譜」는 조선조 제4대 世宗이 그의 왕비인 昭憲王后가 세상을 버리매 首陽大君에게 명하여 그 명복을 빌기 위해 釋迦牟尼의 일대기를 편역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釋譜詳節」(1447년, 전24권, 이중 권6·9·13·19는 국립도서관, 권23·24는 東國大도서관, 권11 복각본만이 전함)이다。이를 父王께 바치니, 그 내용에 결맞는 讚佛歌를 世宗이 지었으니, 그것이 樂章體의 「月印千江之曲」(1447~8년, 上·中·下, 이중 권上만이 전함)이다。

首陽大君이 등극하여 세조 4년(1459년)에 父王이 지었던 「月印千江之曲」과 자신이지은 「釋譜詳節」을 첨삭 합편하여 간행한것이 「月印釋譜」 전24권(?)이다。이 가운데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初刊本이나 覆刻本을 합해서도 겨우 반수 가량이니, 권1·2(西江大 도서관)、7·8(東國大도서관)、9·10(개인)、13·14(延世大도서관)、17·18(개인)、21(李丙燾교수외)、23(잔권 延世大도서관, 峽落本도 있다 함)이다。이들은 모두 原寸이거나 또는 축소하여 影印되어 널리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처지에 새로 알려진 「月印釋譜 第二十二」는 「第二十一」과 「第二十三」의 사이를 메꾸어 주는 零本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寶物 7백45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II

책의 크기는 가로 세로 17·5㎝×31·6㎝로, 원래의 모습을 보이며, 裝訂은 새로하여 題簽과 刊記易 없어 그 간행연대나 開板한 장소도 알 수가 없다。

板匡은 17㎝×20·5㎝이며, 版式도 현전하는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四周單邊, 有界에 1面 7行, 大字 14字, 釋譜詳節 부분은 한 字 내려 注는 小字로 된 全72張 1책의 목판본이다。

책張은 온전하나 맨끝의 72장은 오랜 세월에 磨損되어 후면 1·2행이 분명하지 않을뿐 나머지는 고스란하다。이는 塔藏이나 불상의 腹藏本이 아니고 어느 佛家에서 世傳되어온 것이 아닌가 한다。

版心의 상하 어미사이에 1~29張까지는 「月印釋譜 二十二」이고 30張 이후는 다른 책에서 불수없는 「月印二十二」로 줄여 썼으며, 상하의 黑口와 어미는 內向이고, 종이는 楮紙이다。이와 같은점과 표기등으로 보아 초간본은 아니며 초간본을 底本으로 한 16세기 중엽 이전(?)의 覆刻本으로 본다。

15·16C 희귀語形발견이 큰 성과

鮮初 韻文文學 연구대상 확대

보다 큰 문제는 이 「第二十二」와 이에 앞서는 「第二十一」과의 연결에 관한 것이다。곧 권제二十一의 월인천강지곡 끝 章은 「其四百二十九」인데 「第二十二」는 「其四百四十五」로 시작되니 사이 「其四百四十四」까지의 15章은 어디에선도 찾을 길이 없어 없는 것이다。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卷末의 109장이란 기록과 아울러 37장 이상된 부분에 빠진 15章이 실려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현전하는 「월인석보」에 본문의 張次 표시 외에 따로 장차를 매겨서 월인천강곡을 싣은 책은 하나도 없다。이는 初刊本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영원한 수수께끼로남을것같다。

Ⅲ

다음은 이 「第二十二」의 底經이 무엇인가를 찾아본 결과 「大方便佛報恩經 卷第四 惡友品 第八」의 거의 전부를 意譯한 것임을 알게되었다。이와 관련되는 佛經으로는 生經」(卷第一 佛說譬喩海中經 第八)、「大智度論」(初品 檀婆羅蜜法施之餘 卷第十二)、「四分律」(卷第四十六 第三分十二 破僧犍度)、「經律異相」(卷第三十二 菩薩道譜國太子部 善友好施求珠喪眼還明二)등이 있고, 이밖에 「釋迦如來十地行錄 第六地」의 「善友太子」나 그 부록의 「善生太子經」도 같은계열의설화다。

그런데 이 설화가 우리의 古典이 설화의 원형은 印度설화에서 왔으며, 이 원형에서 두갈래로 나누어져서 한갈랜는 「生經」에서 「大智度論」으로 발전되고, 다른 하나는 「四分律」과 梵語 原典 「카파드루마아바다나마란」로 전개되었는데 여기서 다시 세 갈래로 갈라져서 하나는 「四分律」에서 「善友太子」를 거쳐 「적성의전」에 이르며, 세번째는 「四分律」과 범어원전에서 「報恩經」「賢愚經」을 거쳐 「적성의전」에 이르는 갈래가 있다고했다。

그런데 「第二十二」의 석보상절부분의 줄거리는 어떠한가? 다음에 當世에서 항상 세존을 해하고자 했던 提婆達多를 세존은 오히려 자비심으로 구한다는 이야기에 이어서 無量百歲 전에 婆羅㮈國의 善友太子가 중생의 四苦를 면케 하려고 父王께 청하여 왕실에서 가지고 있던 재물로 중생에 布施했으나, 이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못됨을 깨닫고 보다 큰 책과 간교로 두 눈을 찔러 시력을 잃게하고 寶珠를 빼앗아 혼자 귀국했다。맹인이된 善友太子는 에 이르러 이 나라 공주와 만나 결혼 하여 그 도움으로 두 눈을회복하게 되어 그 나라 王國의 재상이 되며 결혼도 했다。(이공주는 善友가 여의주를 얻으러 바다로 떠나기 전에 약혼하였었던) 한편 惡友太子는 귀국해서 父王께 善友太子의 그 수행원들은 福德이없어서 도중에 모두 익사했다고 거짓으로 아뢰니, 혼자 살아 돌아왔다고 꾸중을 듣고 여의주는 땅에 묻었다。視力을 회복한 善友太子는 전에 자기가 기르던 흰 비둘기를 통해 母后의 편지를 받아 그 사이의 소식을 듣고 회답하니, 惡友의 소행이 드러나 갇히게 되었다 고국으로 돌아가 부모를 만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父王께 탄원해서 惡友를 옥에서 풀어 주도록 하여 그를 위로하고 보호를 다시찾아 傷心해서 눈이 어두웠던 父母의 눈을밝게하고, 寶珠의 힘으로 중생들에게무한한자비를 베풀었다。

그때의 婆羅㮈王과 어머니는 각각 閱頭禮(부처님의 어버지) 과摩耶夫人이고, 惡友와 善友는 각각提婆達多와 부처인데, 부처님께서 이 설법을 마치매 無量百千衆生이 聲聞辟支佛心을 일으켰다는내용이다。

IV

이상으로 새로이 공개된 「月印釋譜第二十二」를 대강 소개했거니와 여기에 그 가치를 다음과 같이정리하여 이글을 맺는다。

1、國語學的으로 많지 않았던자료에 새로운 것이 추가되었으며다른 문헌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어휘나 또는 있었다 하더라도 15·16세기에 語形으로는 희귀한 것을 찾을수 있었던 것도수확의 하나다。

2、國文學的인 면에서는 지금까지 전하던 月印千江之曲(약2백종)에 새로이 50章이 보태어져서 鮮初 韻文文學 연구의 대상이 늘었고, 國文古典小說 「적성의전」의 根源說話로 報恩經, 賢愚經의 惡友品」과 「善事太子入海品」등이 알려졌으나, 이번에 바로 「惡友品」의 번역이 「적성의전」과의 비교로 국문 소설문학 성립과정의 한 면을 좀더 자세히 밝힐 가능성이 있게되었다。

3、書誌學的으로는 연대로 본다면 약400년전, 16세기 중엽의 것이나, 古文獻의 가치로 볼때, 또한 전하지 않는 귀중한 月印釋譜등의 한 책이 完本으로 나타난 점등 稀貴本으로서의 가치도 크다。

國文 소설 문학의 성립과정 밝힐 가능성 높아

이 「月印釋譜」는 가로17·5㎝×세로31·6㎝로 전72張, 50部으로 구성된 木版册이다。

기러기가 하늘을 날을때

鄭泰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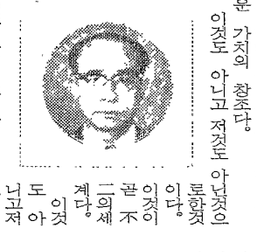
<佛大교수·印度佛文學>

우파니샤드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기러기가 하늘을 날을 때에는 한 발을 들어서 날개에 두고, 한 발을 들어서 날은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그와같이 하라」고。

또한 불교에서는 흔히 中道와 不二의 도리를말한다。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곳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이것 아니면 저것 이란는 뚜렷한 판별을통해서 결단해야 한다고 도 말한다。이것과 저것을 판별하여 어느것을 취하는 것은 두 극을 달린는 것이다。

모든 사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極이 하나로 조화돼었다。비유하면 인간에게는 善과 惡, 美와 醜, 生과 死등이 갖추어져 있다。그러므로 惡과 醜와 死를 싫어하고 善과 美와 生으로 나가려고한다。그렇지만 내가 바라는 그대로 되지않는다。



大学南語

여기에서 같음과 고린이 있게된다。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惡과 醜와 死를 昇化시켜서 아닌고 醜와 死가 아니게한다。곧 조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조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것은 그 속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게된다。따라서 여기에선 이것이라고 해도 안되고 저것이라고해도 안되므로 그저 一默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며 禪의 喝이 이것이며, 禪敎의 영원한 미소가 이것이다。우파니샤드에서는 「네티 네티(neti) 네티(neti)」라고 「아니다·아니다」라는 말로 부정하였다。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닌 절대 부정이다。

念佛喜念 속에 娑婆가 그대로 淨土로 화하고, 般若를 方便으로 살은 마음에는 못할 것이 없으니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五欲을 受用할 수 있다。四天王의 念惡相은 憎惡心에서가 아니고 慈悲心의 方便이요, 佛陀의 中道는 兩極을 떠난 不二의 길이다。

괴로울 때 웃어보라, 괴로움을 여의지않고 그대로 즐거움으로 변해진다。미운사람에게 떡하나 더 주어보라。그러면 미움이 사랑으로 화한다。煩惱는 버릴 것이 아니라 다스릴 것이요, 妄想은 떠날 것이 아니라 더불어 노닐 것이다。

버릴 것을 버린는 것이 西歐的思惟라면 버릴 것을 살려내는 것이 東洋的思惟다。佛敎는 兩極을 떠나서 兩極을 살린는 가르침이다。

MBC오발탄작가 尹靑光 사회비평

으째야 좋을랑고

尹 靑光著

-'84새유행어-

"세상 참 으째야 좋을랑고"

1년에 10억 달라가 넘는 돈으로 외국에서 식량을 사다 먹으면서도, 농사 지을 만한 땅, 과수원이라도 할 만한 땅, 소라도 키울만한 땅을 수십만평씩 골프장으로 만들어 크린샷을 외쳐야만 지도급 인사인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에서

성적자는 결코 입으로만 떠벌리며 편하게 먹고 살고 치부하려는 사기꾼들을 위한 직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으리으리한 성전을 짓고, 개기름이 번지르르 흐르는 얼굴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성직자,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구역질이 나온다. 〈다방보다도 더 많은 교회〉 중에서

"칼날같은 시각, 통쾌한 비평"

값 2800원

東國出版社 ☎ 725-6198

영어공부는 한국에서

미국대학의 Language School이 언어장벽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시간과 돈의 엄청난낭비일 뿐입니다.

「유학영어의 모든것」은 알짜 수강생 15명 내외만 골라 하루에 3시간 한주에 3일간(월. 수. 금/화. 목. 토 7:00~10:00P.M) 씩 명성있는 현직교수 두분이 지도하는 종합코스입니다.

- 항목별, 단계별 학습으로 TOEFL 600점대를 보장합니다.
- 유학시에 필요한 속독, 다독 능력을 습득시킵니다.
- 영어논문(paper) 작성요령을 터득케해 줍니다.

수강대상 : 미국유학을 계획하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분

접수기간 : 매월 마지막주

대학영어의 모든것 SINEW CAMPUS ENGLISH LANGUAGE PROGRAM

TEL. 585-4883/5087

방배전철역 사거리

Interview후에 접수합니다

大學英語

教養, 留學, 就職, 大學院試驗準備

開講 ⇨ 4月1日

(선착순등록마감)

李在玉 TOEFL
아카데미 TOEFL
大學生 TOEFL
時事 TOEFL
Vocabulary 22,000 (12,000)
TOEFL LC, AFKN
英文解釋①②③, 英作文
Word power, 美人會話 TIME
基礎英語會話 성문綜合英語
三位一體 綜合英文解釋
민병철生活英語, 美國生活英語
英語實力基礎, Reading power
美國語 Hearing GRE, GMAT
文法및讀解성인基礎會話
受驗日語(各種試驗對備)
初級日語 中級日語 東京日本語
高級日語, 基礎日語會話
ダイジエスト, 日語高級會話
獨語文法完成 프랑스 語
서반아語, 中國語

院 長 : 文 昌 淳

종로2가 종로서적뒤편 734-2442·732-9226

時事英語學院

영어회화 45기

10주코스 정회원모집

매월15일 개강

기간 : '85 3.15~5.21
요일 : 월,화,목,금(각 1시간20분)
강의 : (시간별)07:00, 10:00, 12:00 14:00, 17:30, 19:00, 20:30
반편성 : 초급Ⅰ Ⅱ, 중급Ⅰ·Ⅱ, 고급 (등급별)
교재 : American Language Course (전 16권)
특전 : 교재4권 Topic제공
접수마감 : 선착순 모집중

인터체인 미술 동시와함 동시마감

접수처 : 기독교회관3층305호 (종로5가)
문의 : ☎ 763-7868, 7856, 764-3911

CEC

CEC문화센터

신입생 교양강좌안내

85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 교양강좌를 아래와같이 개최하오니 전원참석 바랍니다

일	자	요일	시 간	연 사	연 제	해 당 대 학
3.	13	수	09·00 ~09·50	황수영총장	대학과 학문	문·이·농·사
3.	14	목	〃	〃	〃	불·법·경·공·2부
3.	20	수	〃	서정주교수	동국의 시정신	문·이·농·사
3.	21	목	〃	〃	〃	불·법·경·공·2부
3.	27	수	〃	투진장스님	오늘을 사는 지혜	문·이·농·사
3.	28	목	〃	〃	〃	불·법·경·공·2부
4.	3	수	〃	이병주교수	대학생과 독서	문·이·농·사
4.	4	목	〃	〃	〃	불·법·경·공·2부
4.	10	수	〃	오국근교수	동국의정신과전통	문·이·농·사
4.	11	목	〃	〃	〃	불·법·경·공·2부

※장소 : 중강당

매일출석확인후 해당학과에 통보하니 반드시 참석하기바람

1985년 3월 5일

학 생 처 장

大學奬學生(新入生)募集

(學軍·短期士官)

- 募集人員 : ○○名
- 志願資格 : 85年度新入生(4年制大學), 65. 1. 1~69. 1. 1出生者
- 志願書交付 및 接受·期間 : 85. 2 18~3. 23 (學軍團本部)
- 具備書類

1次(志願者)	2次(身檢合格後)
·志願書및誓約書…1部 ·大學入學年成績證明書…1部	·戶籍및住民登錄謄本…各1部 ·財政保證書, 納稅및印鑑證明書…各1部
·寫眞(4×5㎝)…1枚	·寫眞(4×5㎝)……2枚

- 選拔節次
  - 1次 : 書類銓衡(入學成績), 面接, 體力檢定
  - 2次 : 身體檢査
- 合格者發表 : 85. 6. 1
- 義務服務期間 : 學軍6年3月, 短期士官7年
- 特典
  - 大學卒業時까지 登錄金 支給(年間 105萬원)
  - 長期服務者 및 服務延長者 優先 選拔
  - 指導力, 統率力, 行政 및 經營能力 培養
  - 專攻分野活用, 轉役時 職業輔導 實施
  - 大企業體 優待選拔 및 處遇

第112(東國大)學軍團

학생증 갱신발급案內

학생증을 아래와같이 발급하오니 해당기간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요령
   ①등록영수증을 각대학 교학과에 제시하면 「학생증발급신청서」용지 배부。
   ②신청서작성및 사진첨부후 각대학 교학과에 제출。
   ③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학생증용지」를 기록한후 각대학 교학과에서 교부。
   ④학생과에서 비닐필름으로 포장。
2. 발급기간
   1985年3月7日(木)~3月23日(土) (단, 이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4월부터 재발급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3. 유의사항
   ①갱신발급되는 학생증은 한번교부받으면 졸업시까지 4년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진은 가급적 깨끗한 것으로 스틸 칼라사진일 경우 증명이 더 뚜렷있음。
   ②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다를때는 학생증발급을 보류함。(특히 생년월일 위조기재)
   ③학생증은 전액 교비로 제작되며 학생수청은 3월하순에 배부할 예정임。

1985년 3월 일

학 생 처 장

「총학생회」向方은?

"민주 總學生會에 관심높다"

學校·學生間 주장 평행선 上命下服식의 構造 개선 禁物

이해관계얽혀 「復活」 왜곡·해선 안돼

학교측 학생 意思 폭넓게 수용해야

작금의 大學은 분단시대의 非民主的 산물이었던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명실상부한 학생자치기구로서의 총학생회를 부활시키기 위해 진통을 겪고있다. 이 아픔은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대학의 自律化를 위한 거센 몸부림이 되고있다.

그런데 이 몸부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총학생회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는 학생들과 학교당국의 견해차이인 총학생회에 부적 호의적이었다. 지난83년 12월 정부가 이른바 학원자율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당초 본교의 총학생회 부활의 萌芽期는 복교생 대책위원회에서 그 脈을 찾을수 있다. 외부적 압력으로 학교를 떠나야만 했던 그들은 지난해3월 학도호국단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나섰다.

『학도호국단은 간부선임 문제, 의무기관-지도위원회를 통한 학생활동 전반에 걸친 제약, 예산운영에 있어서 학생 대다수의 소외등은 학생 자치기구의 민주적 발전인 총학생회에 부적 호의적이었다. 지난 7일 본교를 비롯한 在京 14개大學 학생대표들은 성명서를통해▲총학생회직에 의한 회원들의 절대적 보장▲학생자치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지도위원회 폐지▲학생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자율적 예산집행의 보장▲학생들의 기본적인 의사를 학교당국에 전할수있는 통로마련▲기준의 학생 주체적인역량에 의해 부활된 총학생회의 인정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측은 그러한 주요쟁점들에 대해 학생들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본교도 「총학생회 부활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학도호국단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는 총학생회 부활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생들은 제2의 자율화조치로서 제시된 총학생회가 단지 선거 방식의 전환과 명칭상의 변화만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관제 총학생회임을 못박고 철저저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愈光震 학생처장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총학생회직 시안을 교수들로 구성된 「회칙연구위원회」에 上程할 방침이며, 이번 주중에 학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밝힐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반면 「총·춘·위」측은 『회칙연구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겠다. 그러나 원칙적이고기본적인 것이 무시된다면 학생들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거의 모든 대학이 학생자치기구로서의 총학생회를 무난하게 이룰어온 시기는 4·19이후부터 지난 74년까지로 평가되고 있다.

75년 당시 총학생회장에 출마했었으며 지금은 복기업에 근무하고있는 「同門」은 『당시의 총학생회는현재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학생대표에 대한 자격규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이 학생을 자율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의 감시권이 팽실한 편이었죠. 학교 정책결정에도 학생 대표의 참여권이 부여되었읍니다』라고 말을 이으며 『그러다가 선거를 보름전도 남겨놓고 있었는 데 학도 호국단 설치령이 발표되었읍니다』하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때부터 학도호국단은 군대식 조직 편제와 명칭, 上命下服의 위계질서가 철저히 강요된 학생자기구로 탈바꿈했다.

이同門은 계속해서 『그 당시의 본교총학생회 旗를 지금 제가 10여년 동안 소장해오고 있읍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학생회 旗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우리학교 총학생회의 상징성과 전통성이 되살아나 잠전 탄도 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회칙, 선거준비, 홍보, 기획 등 4개분과별로 실무작업에 전념하고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학도호국단의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 총문위활동에 대한 별도의 의결기구로서 (학회장, 학년 6인의 학생대표회의 구성) 는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타결점을 찾지못하고 결렬되고 말았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피선거권자의 학년경력문제」 「회계연도문제」 「회칙시안상의 학회인할회 제외문제」 「총문위의 대표성문제」 로 그쟁점이 잠약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총학생회부활」은 당연한 民主意志의귀결적이자 학원자율의 방향을 좌우하는 大學의 정당한 존립기반임에도 불구하고 復活까지는 많은 문제점과 시련에 봉착해있는 실정이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총학생회부활이 정부당국에의해 주어진 제2의 학원자율화조치로 왜곡해석되어 교섭단체인 학교당국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없으며 둘째, 정부측의 시안이 단지 명칭과 선거방법만을 바꾼 학도호국단체제의 연장이라는점 세째, 정부측 시안상 각종 규제조항및 활동한계설정으로 앞으로 구성될 총학생회가 타율적인 의사전달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들을 들수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학생들의 의사를 제도권내에 수렴하기 위해선 많은 진통이 수반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총학생회부활 과정은 학교당국과의 견해조정, 학원사찰 기관의 압력배제, 전체학생의 總意수렴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고 하겠다. 그와 같은 현안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강력한 집행력과 全東國人의 관심및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75년이전 총학생회가 존재할 당시에는 분단시대의 학도호국단 설치령이 발표되었읍니다』하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때부터 학도호국단은 군대식 조직 편제와 명칭, 上命下服의 위계질서가 철저히 강요된 학생자기구로 탈바꿈했다.

이同門은 계속해서 『그 당시의 본교총학생회 旗를 지금 제가 10여년 동안 소장해오고 있읍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학생회 旗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우리학교 총학생회의 상징성과 전통성이 되살아나 인 총학생회에 부적 호의적이었던 학생들과 함께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명실상부한 학생자치기구로서의 총학생회를 부활시키기 위해 진통을 겪고있다. 이 아픔은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대학의 自律化를 위한 거센 몸부림이 되고있다.

그런데 이 몸부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총학생회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는 학생들과 학교당국의 견해차이인 총학생회에 부적 호의적이었다. 지난 7일 본교를 비롯한 在京 14개大學 학생대표들은 성명서를통해▲총학생회직에 의한 회원들의 절대적 보장▲학생자치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지도위원회 폐지▲학생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자율적 예산집행의 보장▲학생들의 기본적인 의사를 학교당국에 전할수있는 통로마련▲기준의 학생 주체적인역량에 의해 부활된 총학생회의 인정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측은 그러한 주요쟁점들에 대해 학생들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본교도 「총학생회 부활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학도호국단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는 총학생회 부활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생들은 제2의 자율화조치로서 제시된 총학생회가 단지 선거 방식의 전환과 명칭상의 변화만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관제 총학생회임을 못박고 철저저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愈光震 학생처장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총학생회직 시안을 교수들로 구성된 「회칙연구위원회」에 上程할 방침이며, 이번 주중에 학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밝힐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반면 「총·춘·위」측은 『회칙연구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겠다. 그러나 원칙적이고기본적인 것이 무시된다면 학생들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거의 모든 대학이 학생자치기구로서의 총학생회를 무난하게 이룰어온 시기는 4·19이후부터 지난 74년까지로 평가되고 있다.

75년 당시 총학생회장에 출마했었으며 지금은 복기업에 근무하고있는 「同門」은 『당시의 총학생회는현재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학생대표에 대한 자격규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이 학생을 자율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의 감시권이 팽실한 편이었죠. 학교 정책결정에도 학생 대표의 참여권이 부여되었읍니다』라고 말을 이으며 『그러다가 선거를 보름전도 남겨놓고 있었는 데 학도 호국단 설치령이 발표되었읍니다』하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때부터 학도호국단은 군대식 조직 편제와 명칭, 上命下服의 위계질서가 철저히 강요된 학생자기구로 탈바꿈했다.

이同門은 계속해서 『그 당시의 본교총학생회 旗를 지금 제가 10여년 동안 소장해오고 있읍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학생회 旗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우리학교 총학생회의 상징성과 전통성이 되살아나고있다. 그런다면 학도

불교음악 現代化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하다.

이른바 梵唄(범패)가 왜 불교의 나라 한국에서 나날이 쇠퇴해가는 현상을 보이는가?

그들(西歐人)의 물질과학으로서는 도저히 쪼갤수 없는<그무엇인가>가 그속에 담겨있기에, 그것이 번거로와 그들은 외면한다. 우선 五線上에 쉽게 적을 수없어 포기하고, 기를쓰고 採譜한음악가가 그것을 가르쳐보니 모조품(模造品)의 영역을 벗어나지못해 끝내는 포기하고만다.

그들은 音樂學的, 또는 考古學的 측면에서 採取(?)하려다 실패하였으니 포기하여도 그만이지만, 한국은 상황이 좀다르다.

최근에 이르러, 또는 훨씬 오래전부터 西歐의 碩學들은 『人類의 究極의 종교는 佛敎이다』라고 외치거나 내다보고있다. 物質科學的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풀수없고 쪼갤수(計算해낼수) 없는 그 술한 大宇宙의 수수께끼들이 최근 非物質과학의문이 열리면서부터 곰곰히 꼬리털(실은 아무도 본사람이 없다) 만을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데, 불교經典을 살펴보니, 이미 석가모니불이 2천5백년전에 大宇宙의 수수께끼들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밝혀놓거나 빈틈없이 알시해놓았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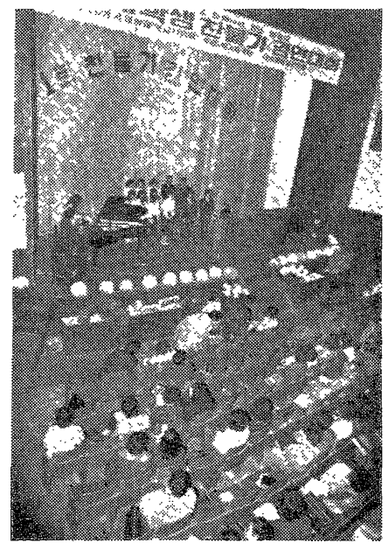
금세기 최고碩學中의 한사람인 아인시타인博士는 운명하기 직전에 내가 10년만 더 일찍이 經典공부를 했더라면 가공할만한 업적을 남기고 갈텐데—하며 못내 아쉬워했다고 한다.

그도 또한 『人類의 究極의 종교는 불교이다』라고 자신있게 예언했던 인류 지성인중의 한사람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국 불교와 불교음악은 앞으로 무엇으로 생각해야하며 무엇을 작업해야할 것인가?

우선 한국自負을 생각해야 하는 만큼 이류를 생각해야 할것이며 다음은한국이라는 이름의<個性>을 인류라는 이름의<普遍性>으로 연결시키는작업을 전개해야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한국 전통불교음악의 現代化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것이다.

外形위주의 사고가 쇠퇴원인



▲불교음악은 귀로듣는것이아니라 마음으로 듣는자세가 앞서야한다.

그것은 과연 可能한것인가, 아니면 끝내 불가능한 것인가?

前述한 바와같이 전통불교음악(우리나라 民俗樂이나 正樂도 같은 처지에 있다)을 五線上에 옮겨보려는 노력은 꽤 오래전부터 試圖되어왔고, 지금도 끈질기게 시도되고있으나, 아직 단 한건도 성공한 사례를 筆者는 보지못했고, 그것을 公認하는 보고나 論考를 접해본 적이 없다.

왜 성공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명백하다. 도대체 十二平均律의 五線譜에다 無窮(이말은 필자가 처음쓰는 용어이다)의 梵唄를 죽여 담으려는 자체부터가 기가 막힌 착각인데다, 이를 피교육자에게 「이것이 梵唄이다.」하고 들이대는 어리석음에이르러서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梵唄가 쇠퇴 一路를 걸음 수밖에 없었던 주요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過去의 <外形>을 그대로 현재에 옮겨놓으려는 환상적 사고방식을 조속히 버리지않는한, 전통불교 음악의 현대화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역사는 시시각각으로흐르고있는데 천년전, 이천년전의 음악이 그대로現代에 通用될수는 결코없다. 이 지구상의 모든문화적존재는 반드시 그걸맞음(外形)이있고 속모습(內在性)이 있기마련이다. 우리의 전통불교음악도 역시 그걸모습(卸場, 發聲등)이 따로있고 속모습(예술적, 종교적內在性)이 따로있다.

그예술적, 종교적 內在性을 포착하는일, 후후하는일, 자신의 피속에 용해시키는일이 先行되지않는한 결코 참된 현대화작업은 이루어질수없는것이다.

귀로 듣는것이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자세가 앞서야만이 비로소 흡족되고 용해되어<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卒胎期에 접어드는 것이다.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오랜 과정을 통해서만이<第二의 佛敎音樂時代>가 서서히 형성되어가는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전통불교음악 즉 梵唄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고, 傳授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의 얼굴>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이 어떻게<오늘의 얼굴>을 재창조할수 있겠는가.

<徐昌業 <조계종 불교음악연구원장>

顚倒된 교직관

교육의 모든과정, 독자성 보장돼야

교사채용시 돈요구하는 세상

해마다 大學을 卒業하는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某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대졸자의 순수취업률(大學院진학 군인대 제외)은 48%정도에 불과하며 올해의 경우에는 그보다도 더 감소하리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졸업자 대부분이 敎職에 진출하기를 바라는 師大卒業生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師大를 갖춘 졸업자 대부분이 敎職에 진출하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담한 경로를 통해서 교직원채용시 그 대상자들에게 교사자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결코 떳떳할 수없는 사회를 위해서도 극히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불경기로 인하여 초래된 예외적 현상이거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파렴치한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고 싶지만 불행히도 이것은 보다 심각한 원한든 원하지않든간에 敎育論理의 범주내에서 자기 표현한 필자의 의미는 취열을 그 자체가 극히 저조하여 졸업생들이 취직을 못함으로써 곤란한 사정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원적 행위가 대답하게(?) 인이 되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하여 우리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위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또한 敎師는 그가 원하는 원하지않든간에 敎育論理의 범주내에서 자기 행위의 본질과 합리성을 추구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써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러한 반논리적, 모순에 이끌리게 된 것은 뜻밖의 일이거나, 그로 인해서 단기요 법적인 처방책이 量産되어 선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어 교육제도 및 정책이 완벽하게 수립되어질 때 우리는 교육의 내적 요인들은 결시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어 왔다. 물론, 현대사회 는다. 다만 이것은 정도의 문제일 따름이고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절실히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에 의해서 교육정책이 치우쳐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단기요인만으로 교육제도 및 정책의 내적 요인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있고 상대적으로